



만수 스님 (금각사 주지)

1955년 입산. 1965년 김용사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6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그 후 전국의 여러 선원에서 안거를 수선. 1988년부터 금각사에서 머물고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만수

“도를 이루고 싶으면 가난부터 배워라”

파도고개를 넘어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지만 절의 팻말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골목길 끝까지 가 보았더니 대문에 걸린 연등 하나가 하얗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열댓 평 남짓 되는 법당이 눈에 들어온다. 법당 앞에는 세 그루의 측백나무가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으며, 크고 작은 수십 개의 화분이 단청 없는 법당에 수를 놓고 있다.

성철 스님의 세 번째 상좌인 만수 스님은 성정이 어질어서 큰스님이 참으로 좋아했다고 한다. 금각사를 둘러보면서 거저 꾸미는 것을 싫어하여 백련암에 단청도 하지 않고 지내셨으며, 꽃을 좋아하여 송이마다 화장찰해(華藏刹海)라고 했다는 성철 스님을 떠올렸다. 허름한 요사채를 손볼 요량도 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나 꽃을 좋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성철 스님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만수 스님은 성철 스님에 대해 이런 비유조차도 가장찮은 일이라면서 “은사스님의 천만분의 일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손을 내젓는다. 금각사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중생들의 치열한

의외어. 우리가 공부한 것을 성철 스님께서 나름대로 점검하셨지요.” 만수 스님은 ‘너는 아무래도 불가와 인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열다섯 살에 입산하여 성철 스님을 만났다. 그때 성철 스님은 성전암 주위에 월조암을 치고 공부를 하던 때라 바깥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됐다. 성전암에서 나무하고 밥하고 공부하면서 구년의 세월동안 스승을 모셨고, 김용사에서 일 년 동안 더 스승을 모신 다음 사미계를 받았다. 세간 사람들은 십년동안 행자노릇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지만 십년의 세월도 금방이란단다.

“성철 스님은 직접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올렸고, 우리와 더불어 지게 지고 나무 한 짝 해다 날랐어요. 스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공부고 수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은 가끔씩 들러 살림살이를 꼼꼼히 보여주시면서 당신께 공부를 점검받았던 법전 스님과 청담, 자운, 황곡 스님 등 몇 분 말고는 다른 일반인들은 일절 만나지 않았다. 큰스님들의 법거랑을 가까이서 지켜보곤 했던 만수 스님은 절로 신심이 났다. 어느 덧 수행생활 선 해를

는지를 자문하게 만든다고 했다.

사미계를 받은 날 삼천 배를 하고 은사스님으로부터 ‘조주 무(無)자’ 화두를 받았다. 그 후 여러 선방을 전전하면서 공부하였다. 그러다 백련암으로 돌아와 스승을 삼년동안 더 모셨다. “눈을 뜨고 보면 우리 모든 존재가 광명세계 속에 살고 또 그 자체가 광명”이라는 스승의 말씀은 만수 스님의 공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백련암에 눈이 쏟아진 어느 겨울날 성철 스님께서 산책을 하시는데 눈발에 속옷이 하나 너무러져 있었다. 이를 본 성철 스님은 “빨래를 하기 싫어서 눈발에 버렸다”고 생각하여 “이거 누구 옷이고?”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만수 스님이 얼른 뛰어났다.

“웃에 이가 많아 가려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해서 지도 추우면 도망가겠지

싶어 눈발에 웃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듯 ‘출가자로서 이해도 될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은 마음 속 깊이 각인되어 평생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칭찬한 계율을 견지하여 웨범(戒犯)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최후 유훈은 불교의 생명”이라고 누구도 강조하신 스승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만수 스님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내놓을 것이 없으며 훗날 공부가 되었을 때 내놓겠다면서 스승님의 이야기 외에는 모든 것을 사양했다. 어떻게 하면 참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선 공부요,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참선공부지요.”

우리의 삶이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생성되고,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 한 땀 한 땀 엮이면서 생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니 ‘지금 이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가 아닐까 싶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은사 성철 스님의 ‘성전암 등구불출’ 시봉 행자 생활 10년...“최저생활로 최고 노력을”

삶의 터전인 시장이 있고 번잡한 두류공원이 있지만, 만수 스님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깊고도 고요하다.

지금의 종정인 법전 스님께서는 만수 스님을 두고 ‘걸어 다니는 육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만수 스님은 육련을 즐줄 외로 정도로 한문에 능하다. 한문으로 된 경문을 읽으려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사서(四書)를 배워야 한다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유가(儒家)를 공부했다. 지금의 천재 스님을 비롯하여 행자들과 나무하고 밥하면서 사서의 구절구절을 소리 내어 외웠다.

성전암에는 하루 종일 행자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성철 스님은 그 글 읽는 소리가 듣기 좋았던지 한 번도 시끄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사서를 열추 다 공부하고 나서 는 일반어를 독화하여 일본어로 된 경서를 능히 읽을 정도가 됐다.

“자율적인 공부 방식이었기에 못해도 야단치는 법이 없었어요. 사서를 떼고 나니 경문을 읽고 외우라고 하네요. 주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육조단경> 등을 공부했는데, 그중에서도 <금강경>과 <육조단경>은 그냥 통째로

출력 넘겼지만 성전암 시절만큼 간절히 공부한 적도 없었다고 회고한다.

성철 스님은 “참으로 수도를 하려면 최저의 생활로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도를 하려면 먼저 가난부터 배워라”고 항상 일러주셨다. 그 옛날에는 나일론을 고급으로 치던 시절인지라 누군가가 나일론 양말을 보시하면 성철 스님은 “나는 나일론이 흔해질 때까지 신지 않겠다. 너 희를 신어라”고 하셨다면서 은사스님의 검박함을 떠올렸다.

만수 스님은 경문을 외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금강경> 첫 구절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금강경> 첫 구절은 언제 읽어도 가슴 설레인다”고 했다.

“세존께서는 진지 드실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발우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성안에서 차례대로 비시었다. 그리고 절로 돌아오셔서 진지 잡수시고는 가사와 발우를 거두시고 발 씻으신 뒤 자리 펴고 앉으셨다.” 이 구절은 이 천육백 년 전의 부처님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스승님의 일상생활이기도 해서 아련한 그리움을 자아낸다. 그리고 또 수행자의 일상이기에 과연 수행자답게 잘 살고 있

Advertisement for Bumyang Gold Lockers (범양금고 불전함). Features include: '천공과 실력의 우수업체' (Superior quality and expertise), '범양금고 불전함' (Bumyang Gold Lockers),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로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Reduced psychological burden by mimicking wood lockers and using steel plates),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All Bumyang lockers are here), and a list of models: B1630, B1670, B1750, B1860.